

어떻게 하고 있나 ?

편집자주 : 편집실에서는 현지탐방기사를 이미 양계업계에서 성공하신분들의 농장이나 양계장 보다 오히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양계가에 주안점을 두고 탐방하기로 하였다. 그들의 성공여부는 뒤에 보기로 하고 확실하게 이끌어 나가는 양계장을 선정하였다.

● 가로 60cm, 세로 45cm

경작(耕作)보다 개척(開拓)을, 이러한 편집부의 방침에 따라 취재기자는 수원시 연무동에 자리잡고 있는 연무 양계장의 공상현씨를 찾은 것은 9月末·양계장 정문의 문패가 눈에 띄게 커서 장난삼아 재어 보았더니 가로 60cm, 세로 45cm의 초 대형, 공상현씨를 만났더니 신장 176cm 체중 82kg의 그의 문패와 알맞는 초 대형 양계가 이었다. 씨는 1967년도에 서울대 농대 축산과를 졸업하고 개인 농장에서 1년간의 실습을 마친후 양계장을 경영하는 말하자면 정규과정을 수료한 양계가 였다. 마치 군(軍)으로 얘기하면 사관학교출신장교와 같은 그의 위치에서 일반 양계가와 어떠한 점이 다른가 조심스럽게 살펴 보았다 『나는 실패한 양계가 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였다 라고 하나 씨 주십시오』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털어 놓는 그의 양계일기는 이러하였다.

● 잘못된 시작

양계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68년 3월 호경기의 닥바지에 이르렀을 때 였습니다. 호경기 다음의 불경기가 시작되리라고는 예상 했었지만 그렇게 심한 불경기라라고는 예상하질 못했습니다. 처음에 투자된 자본의 내력은 고정자본으로 50坪 짜리 계사 2동에 100만원(평당 10,000원) 케이지 2,000수분 25만원 기타 육추용 급이 급수기 분무기, 전기 가설비, 단장 등에 약 30만원 합계 155만원이 투자되었고 4월25일추 1,000수(레그혼)와 10월 23일추(웹프론) 850수의 육성비로 90만원 약 250만원 잡비까지 합하면 300만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4월 25일추가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여 제법 제 먹이는 한다고

생각할 때부터 불경기가 닥쳐와 앞으로의 양계업을 함에 있어서 순탄치 않을것을 시사해 주는 듯 했습니다. 자본의 투자액은 전업양계가에 있어서 처음 시작할때는 때와 곳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3,000수에 필요한 자본액은 300만원 정도가 최소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건물비에 너무 많은 자본이 들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저는 잘못된 시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첫 달걀을 받은 날

초산일령은 4월 25일 추인 레그혼은 늦은 봄 병아리에 속하므로 자연일장에 그대로 두어서 육성한바 120일령에 초산을 시작하여 151일령일 때 50% 산란에 도달해서 지금은 80%의 산란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초산이 빨라서 탈홍도 많이 생겼고 그후 폐계도 많이 생겼습니다. 반면 10월 23일인 가을추는 점감 점등 방식을 취하여 첫 먹이때는 24시간 점등하고 매주 점감하여 주령 24주령에 자연일장에 맞추었던바 138일령에 초산을 시작하여 168일령에 50%의 산란을 하여 봄병아리에 비하여는 초산이 많이 억제된 셈이 있습니다. 현재의 산란율은 약82% 정도입니다.

● 콕시듐의 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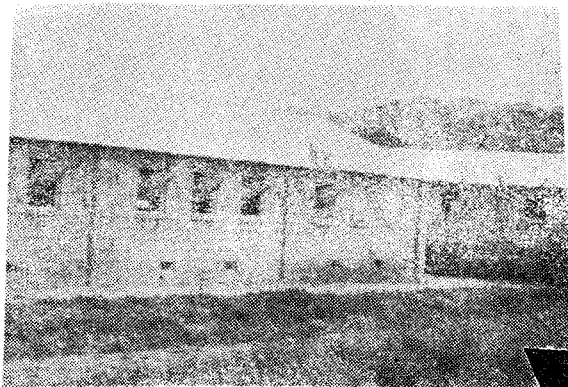
레그혼 육성시 42일령때 만성 콕시듐이 걸렸는데 소장(小腸) 콕시듐인 네카틀릭스나 아씨브리나로 추측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나 시장에서 열무를 청채로 구입하여 먹인탓에 아마 감염된것 같았습니다. 물론 계사및 대지 모든 기구는 새것이었고 충분히 소독하였습니다. 사료에는 콕시듐 예방제가 없었고 단지 후라조리돈이 첨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료는 암푸를 수용제로

억제시켜 보았으나 별 효과를 못보았고 암시드 설과를 투약하여 옥시돌억제효과는보았으나 110 일령까지 장기 투약하므로써 화골(化骨) 상태가 지극히 불량하게 되어 성계가 된후에도 탈골이 많이 생겨서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물론 투약 시 중조도 섞었고 2,3일 투약후 5일 중지를 반복하였으나 무려 2개월간의 장기투약이 Ca흡수를 방해하여 뼈조성이 나빴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의 옥추인 10일 23추에는 사료에 암푸롤도 섞고 방역에 철저를 기했으나 또 발병하여 이번 투약시에는 닭똥에 증상이 나타나고 계군상태가 나쁘다 느껴질때만 농도를 1.5배 정도로 진하게 타서 3일간 투약하기를 3번정도하여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축하기에 햄프흔이 되어서 잠중강세가 되어 항병성이 강했는지 혹은 이번 투약방법이 옳았는지 확신할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던 제 생각에는 만성옥시돌(소장옥시돌)이 발병하였을때는 계분에 그 증상이 없어질때까지 장기투약(설과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되었습니다. 하여튼 옥시돌의 기습으로 나는 몇개월간 완전히 그로키 상태였고 또 옥시돌은 양계사업의 핵병아리인 나를 실컷 골리고는 유유히 물러갔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병아리에 대하여서는 예방이 최선이 방법임을 피부로 느끼는 것입니다.

● 신문시세는 엉터리

생산품의 처리는 레그혼알은 평균난중 59그램으로서 신문시세보다 개당 1원씩 더 받고 수원시장에 공급했으나 12원씩 몇일간 출하한뒤 알아보니 실제 시장가격은 13~14원 썩이란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신문시세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매일의 계란 가격을 비 영리단체인 어느 단체에서 조정해서 적정가격을 통보해 주었으면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 가금협회의 커다란 일종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햄프혼알은 코니쉬 계



<사진은 연무 양계장>

통·숫놈을 인공수정으로 교배하여 세미 부로일러 종으로 하여 경기 부화장에 종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적정 규모는 3,000수

현재 본양계장의 규모는 레그혼(킴버라인) 750수 햄프흔 800수 모두 1,500여수이다. 원래의 계획은 연중 3회 입추하여 (1,000수씩) 성계 3,000수규모로 할 예정이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7회입추후 급년 봄 옥추를 못하여 계획에 차질이 왔지만 성계 3,000수를 목표로 노력중입니다. 물론 양계업이 그 성질상 무조건 마리수확장에만 힘을 쓸것이 아님은 잘 아나 규모가 3,000수 정도는 되어야 운영면에 있어서 힘을 쓸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경기때의 적응능력 호경기때의 저축성 부화업자나 계란수집상들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상거래를 할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건축중인 60여평 계사가 완성되면 1,500수 정도를 더늘려서 3,000수 계획이 달성되면 수원의 몇몇 업자들과 힘을 합쳐서 협동체를 만들어 수원시장에 있어서 생산자가 손해 보지 않는 가격유지와 중간업자들의 지나친 폭리로 소비자가 골탕먹지 않는 가격유지등 여러 가지 사업면에서 해보고 싶은게 많습니다.

주소 : 수원시 연무동 91-3